

장백산천지

제 142 호

2009 년 6 월 19 일

금요일

6 천명 파룬궁학원들이 뉴욕에서 대시위행진을 거행

지난 6 월 6 일, 세계각지에서 온 6 천명 파룬궁학원들이 뉴욕 맨하튼중심에 모여 “량지를 불러일으켜 박해를 정지시키자”는 주제로 성대한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길다랗게 늘어선 행진대오는 “대법이 널리 전파”, “중원의 재난”, “중공해체 박해정지”, “파룬따파가 좋다” 등 4 개 부분으로 나누어 뉴욕민중과 유람객들에게 기세 드높고 장엄하고 신성하며 또한 역사적의의가 있는 위대한 화폭을 펼쳐보였다.

제 1 부분: 대법이 널리 전파



파룬궁주요저작 “전법륜”



파룬궁 공법표현



파룬궁이 널리 전파함을 경축

제 2 부분: 중원의 재난



중공의 흑형을 전시



박해로 세상 뜬 동수들을 추모



동수들을 추모

제 3 부분: 중공해체 박해정지



정의의 퇴당조류



5 천 5 백만 “3 퇴”를 성원



중공해체 새중국 영접

제 4 부분: 파룬따파가 좋다



파룬궁이 좋다



파룬따파를 전세계로 널리 전파



각 민족의 대법제자들

파룬궁 10 주년평화반박해뉴스발표회를 소집

지난 4 월 30 일, 미국국회중의원사무청사에서 파룬궁 10 주년평화반박해뉴스발표회를 소집했다.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뉴저지 등 성시에서 온 20 명 파룬궁학원들을 강급, 혹형, 살해한 중공의 죄행을 폭로했으며 여러 국회의원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을 힘껏 도와 구원하고 중공의 박해를 즉각 제지시킬 것을 호소했다. (윗사진)



미국국회의원 스미스(옆사진)는 대회연설에서 《중공독재정권이 민주정치로 전화

될때 파룬궁수생들은 정의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파룬궁학원들이 펼쳐보인 용기는 모든 사람들의 탄복을 받게 될 것이다……연합국주재미국국회대표단대표로 당선된 나는 노력하여 연합국인권위원회에서 파룬궁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길림성정법위원회서기 리신학이 회의를 열고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라고 지시



지난 5 월 31 일 오후 2 시, 길림성정법기관에서 “온정유지사업회의”를 소집했다. 부성장 김진길(金振吉)이 회의를 사회하고 중공길림성정법위원회 서기이며公安청 청장인 리신학(李申学)은 파룬궁학원을 박해할데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다.

《2009 년 12 월말까지 전성 9 개 시, 지역, 주의 각급정법기관과 기층조직에서 파룬궁중점인원에 대해 전코스추적과 분공책임추적을 해야 하며 세뇌반을 꾸려야 한다. “파룬궁중점대상”에 대해 도맡아 감독해야 하며 그들이 집에 컴퓨터가 있는가? 인터넷을 놓았는가? 전화, 핸드폰이 있는가? 등등을 잘 검사해야 한다.》

장춘법제훈련학교의 진상

“장춘법제훈련학교”는 사당이 길림성파룬궁제자들을 박해하는 세뇌반기지이다. 몇년동안 불법적으로 전성 각지의 수천명 파룬궁수련생들을 강제로 갇워넣고 파룬궁을 모함하고 수련생들을 모욕하며 심지어 마구 때리고 전기찜질하고 야만적으로 음식을 주입하고 신경중추를 파괴하는 약물주사를 놓았다. 이리하여 수련생들은 미치고 불구로 되고 바보가 되고 피살되여도 악인들은 아무런 법률책임이 없다. 이 세뇌반에서 수련생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정신병원 혹은 로교소에 보내어 계속 박해한다.



박해로 세상 뜬 파룬궁학원 장휘

2004 년 12 월 6 일, 파룬궁학원 장휘(张辉)는 연길시이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불법적으로 8 년 도형에 언도되어 공주령감옥에 갇혀 모진 박해를 받고 금년 4 월에 억울하게 세상을 떴다.

공주령감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파룬궁학원들에게 매일 하루에 10 여시간 고역로동을 시켰다. 장휘가 고역이 너무 과중하다고 항의하자 감옥 정교과 책임자 류해양(刘海洋)은 그를 사정없이 구타했고 제 4 구역 지도원 왕길경(王吉庆)은 그를 “작은 방”에 갇워놓고 박해했다.

장휘 모친은 아들을 면회하려고 여러번 감옥에 찾아갔지만 악인들은 “610”소개신이 없다는 구실로 번번히 거절했으며 그들의 박해진상을 봉쇄했다.

내장이 상해를 입은 장위가 생명이 위급한데도 마다하고 감옥에서는 질질 끌면서 병보석을 주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해부해보니 장휘의 위장이 전부 시꺼멓게 썩어서 더는 만구할수 없었다.

공주령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있던 룡정시파룬궁학원 김태준(金泰俊)은 금년 4 월에 온몸이 썩어서 뼈가 드러나고 생명이 위급하여 공주령중심병원에 호송되었다.

